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. 9. 24.(화)

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
2024년 9월 23일자 한국경제 <폐건전지보다 위험한데...폐의약품 수거율 고작 10%, 毒이 된 약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

□ 보도 내용

-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‘환경부 권고’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
- 연간 6,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%에 불과, 일반 쓰레기·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,000톤으로 추정

□ 설명 내용

-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‘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 -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

<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>

<단위 : kg>

구분	‘20	‘21	‘22	‘23
폐의약품 수거량	386,567	415,134	486,992	712,891

<폐의약품 수거 거점>

기존	추가
약국,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	아파트관리사무소, 주민센터, 공공기관, 우체통 등

-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%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

담당 부서	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	책임자	과 장	정호경 (044-201-7421)
		담당자	사무관	배영균 (044-201-7425)

